

‘개막전 관전 여유’ 러시아…한국이 까다롭다는 벨기에

〈카펠로 감독〉

〈공격수 메르텐스〉

H조는 지금

여유로운 러시아, 방심않는 벨기에

러 감독, 한국과 1차전 앞두고 개막전 관람 골키퍼 아킨페예프도 “영화나 본다” 차분
되레 벨기에는 “평가전과 달라” 한국 경계
선수 피로 누적 우려 미국과 평가전도 취소

2014브라질월드컵이 13일(한국시간) 브라질-크로아티아의 개막전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다. 한국이 속한 H조 경쟁국들도 현지훈련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리며 첫 경기에 대비하고 있다. 벨기에-알제리(오전 1시), 러시아-대한민국(오전 7시)의 조별리그 1차전은 18일 열린다.

● ‘한국의 첫 상대’ 러시아…긴장감과 거리 두고 여유 즐겨

조별리그 첫 경기는 어느 나라에나 부담스럽다. 직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강팀도 1차전에선 종종 고배를 마시곤 했다. 첫 경기를 앞둔 선수들과 지도자들은 예민해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긴장감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우선 주장인 파비오 카펠로(이탈리아) 감독부터 적어도 걸으면 쫓기는 모습이 아니다. 이타르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은 12일 “카펠로 감독이 니콜라이 톨스티흐 러시아축구협회장과 함께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브라질과 크로아티아의 개막전을 관람한다”고 보도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12일 월드컵에 참가하는 지도자 연봉 순위를 발표했는데, 이 중 카펠로는 669만 3750파운드(약 115억원)로 1위를 차지했다. 가장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도, 몸값에 걸맞게 여유 있는 행보다. 감독뿐이 아니다. 주전 골키퍼 이고르 아킨페예프 역시 “난 휴식시간에 축구 대신 영화를 본다”며 차분한 재충전을 강조했다.

● ‘H조 최강’ 벨기에…축구는 상대적인 것, 방심은 금물



벨기에는 조별리그 3차전 상대인 한국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다. 벨기에는 12일 상파울루 인근 모지다스쿠루지스의 베이스캠프에서 공개 훈련을 진행했다. 전날 브라질에 도착한 벨기에는 여독을 의식한 듯, 약 1시간30분 정도의 가벼운 몸 풀기로 훈련을 종료했다. 이어 열린 기자 회견에는 8일 튀니지와 평가전에서 결승골을 넣었던 드리스 메르텐스(나폴리·사진)와 마르크 빌모츠 감독이 참석했다. 메르텐스는 한국에 대해 “평가전은 월드컵 본경기와 다르다. 한국은 상대하기 까다로운 팀”이라고 말한 뒤 “예를 들어 우리가 평가전에서 5-1로 이긴 룩셈부르크가 이탈리아와는 비기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아는 한국선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없다. 한국은 좋은 팀”이라고 형식적 답변을 내놨다.

한편 12일 예정됐던 벨기에와 미국의 비공개 평가전은 취소됐다. 빌모츠 감독은 “평가전을 치르려면 차로 왕복 5시간이나 움직여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러시아대표팀의 사령탑인 ‘명장’ 파비오 카펠로 감독이 11일(한국시간) 브라질 이투에서 펼쳐진 공식 훈련 도중 선수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카펠로는 2014브라질월드컵에 참가하는 지도자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다. 이투(브라질) | AP뉴시스

외곽안글 월드컵

월드컵 티켓 지레 포기 마세요

● 브라질월드컵 티켓, “하늘의 별 안 따도 된다!”

브라질월드컵 티켓은 하늘의 별따기? 그렇지도 않다. 과거 월드컵 티켓들이 개막 이전에 일찌감치 매진됐던 것과 달리 이번 브라질월드컵 티켓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소식. 지금 예매를 시도해도 충분히 티켓을 확보할 수 있다. 조별리그, 16강전, 8강전, 4강전, 3·4위전, 결승전까지 전체 64경기 중 무려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15경기 이상의 입장권이 남아있다고 12일(한국시간) AP통신이 전했다. C조 그리스-코트디부아르전, F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이란전 입장권이 팔리지 않고 있다. 코트디부아르 디디에 드록바(갈라타사라이)의 팬이라면, 그가 그라운드에서 뛰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얘기가. 놀랍게도 강호들의 경기 티켓도 널 팔렸다. D조 이탈리아와



2014브라질월드컵의 최대 피해자(?)는 양표상들이 아닐까. 월드컵이 개막했지만 아직도 티켓이 남아있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축구 강국들의 경기 티켓까지 정가에 구매할 수 있다. 사진은 브라질 월드컵 티켓 판매기.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 | 하유미 통신원

와 우루과이, E조 스위스와 프랑스, G조 독일과 가나 등의 티켓도 구매가 가능하다. 세계 축구 최강국들의 월드컵 경기 티켓이 웬만한 아이돌 콘서트 티켓보다 구하기 쉽다니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 “파봉 코리아!” 한국산 번역서비스 브라질서 인기
월드컵을 보기 위해 전 세계 축구팬들이 브라질로 모여들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언어다. 길 찾기, 음식 주문, 화장실 문의 등 기본적인 사소통조차 만만치 않다. 설상가상으로 브라질은 남미국가 대부분이 사용하는 스페인어 대신 포르투갈어를 쓴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 한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외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BBB(Before Babel Brigade)’라는 이름의 번역 서비스다. 복잡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길을 잃었다고 당황할 필요가 없다. 전화로 서비스에 접속해 자신이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된다. 그 다음은 자동으로 번역 담당자와 연결돼 자신이 원하는 말을 얻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7월 25일까지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BBB는 2002한일월드컵 때 개발됐다. 당시 2000명의 자원봉사자가 7개국어를 구사하며 전 세계인의 입이 되어줬다면, 현재는 4500명이 19개국어를 사용하며 브라질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항당 월드컵



‘사고뭉치(?)’ 카메룬대표팀이 사무엘 에투(첼시)를 앞세워 10일(한국시간) 온갖 잠에 끝에 브라질에 입성하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 | AP뉴시스

CCTV 감시 받는 ‘사고뭉치’ 카메룬 선수들

‘사고뭉치’ 카메룬대표팀이 브라질에선 아예 감시까지 받는 신세가 됐다. 스페인 언론 ‘문도 데포르티보’는 최근 “카메룬축구협회가 대표팀 숙소인 셰라톤 빅토리아 호텔에 감시 카메라 설치를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풀커 핑게 감독 등 코칭스태프가 선수들이 행여 호텔에 낯선 여자를 끌어들이까 우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팀 리더인 사무엘 에투(첼시)와 알렉상드르 송(FC바르셀로나) 등이 ‘요주의 인물’이다. 가족이나 브라질행 비행기를 타기가

지 포상금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카메룬 선수단이 이 같은 ‘비인권적 처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이에 앞서 카메룬 선수단은 “월드컵 출전수당을 더 올려달라”며 파업을 벌여 예정된 시각보다 8시간이나 늦게 브라질행 비행기에 올랐다. 1994미국월드컵, 2002한일월드컵에 이어 벌써 3번째 스트라이크다. 전대미문의 선수단 감시 카메라가 과연 카메룬의 성적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김영준 기자 galzby@donga.com 트위터@matrsi21

잃어버린 티켓 찾아 쓰레기장 뒤진 축구팬

당신이라면 월드컵 티켓을 구하기 위해 약취가 진동하는 쓰레기장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한 열혈축구팬이 잃어버린 표를 찾아 무려 2시간이나 쓰레기장을 뒤진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브라질의 아서 알베스는 1000달러를 넘게 주고 여행사리 월드컵 티켓을 손에 넣었다. 그러나 개막을 코앞에 두고 그의 꿈은 충격과 공포로 변했다. 아무리 찾아도 티켓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낙심해 있던 중 섬광처럼 ‘혹시 누군가 쓰레기통에 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집안의 쓰레기들은 이미 쓰레기장

에 실려가버린 상황. 알베스는 쓰레기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쓰레기더미를 향해 뛰어 들었다. 기운은 썩세 29도였지만 쓰레기가 내뿜는 열기로 인해 알베스의 체감온도는 38도까지 치솟았다. 다행히 2시간 동안 쓰레기더미를 파헤친 끝에 티켓을 되찾을 수 있었다. 알베스는 “월드컵 트로피처럼 티켓을 들어올렸다. 해피엔딩이 돼서 행복하다”며 웃었다.

김영준 기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mkhj2357